

마리아행전 '왕의 기도'

6월 10~11일 각 캠퍼스 본당, 12일 양재 사랑홀
이재훈 위임목사, 정명호 목사, 유기성 목사 메시지



2025 마리아행전 '평강의 복'.

마리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다. 2026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 이
오는 6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국내 온
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왕의 기도' (요
17:1)를 주제로 막 오른다.

6월 10일(수)과 11일(목)에는 양재온누리교
회 집회 실황을 각 캠퍼스에 전송한다. 유튜브
송출은 하지 않는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
회 마리아들은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캠퍼
스 마리아들은 소속 캠퍼스 본당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면 된다. 12일(금)에는 양재온
누리교회 사랑홀에 모든 마리아가 모여 연합
기도회를 한다.

2026 마리아행전 '왕의 기도'에서는 10일
이재훈 위임목사 '자신을 위한 왕의 기도', 11
일 정명호 목사(혜성교회) '교회를 위한 왕의
기도', 12일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 '세상을 위한 왕의 기도'를 주제로 메
시지를 전한다.

마리아행전에 참가하는 마리아들은 밝은 색
상의와 짙은 색 하의를 입어야 한다. 집회 기
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
다. 양재온누리교회와 양재역 주차장을 오가
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마리아들은 목회행정실에
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선착순 모집

한다. 현장 신청은 회비 4만 원. 온라인 및 전
화 신청은 받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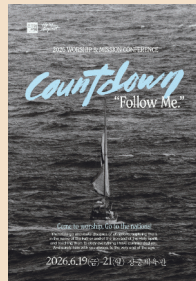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는 "올해 마리
아행전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회, 세상을 위해 드리신 기도를 붙잡고 나아
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내 뜻을 앞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훈련받는 마리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

문의: 02-3215-3667(서빙고), 02-570-7277
(양재),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

6월 19일~21일 장충체육관



대학청년부에서
'2026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
다운' (이하 2026
카운트다운) 참가
자를 모집한다. '나
를 따르라' (마
16:24)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

는 6월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장충체
육관(서울 중구 동호로 241)에서 막 오른
다. 참가신청은 카운트다운 홈페이지(cou
ntdown2026.org)나 QR 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일요일주일 연합예배는 무
료). 참가신청을 한 다음에는 카운트다운
홈페이지 'My Page'에서 신청 내용을 확
인하고, 현장 접수에 필요한 QR 코드를 받
급받아야 한다.

2026 카운트다운에서는 19일(금) 황성
은 목사(창동염광교회), 20일(토)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문대원 목사(대구동
신교회), 이용규 선교사(인도네시아), 21
일(일)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양승훈 선교사(불어권 선교회),
이재훈 위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2026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발대식

6월 24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2026년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발대식이
'나를 따르라, 열방을 향해'를 주제로 6월
24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
회 본당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아웃리
치 팀장이 대표로 6월 17일(수)까지 QR코
드로 하면 된다.

2026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발대식에서
는 예배, 이재훈 위임목사 메시지, 아웃리
치를 위한 중보기도, 아웃리치 지침 안내
및 교육 등의 순서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
내외 아웃리치 참가자 및 각 공동체 리더
십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직 아웃리치 계획서를 입력하지 않은
국내외 아웃리치팀은 6월 12일(금)까지 '온
누리 아웃리치 플랫폼' 앱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웃리치 보고
서는 아웃리치 일정 종료 이후
2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215-3244



/ 박지혜 기자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

714연합기도대성회, 7월 17~18일 잠실학생체육관

714연합기도운동본부가 주최하는 '714연합
기도대성회' (이하 714기도회)가 '복음의 증
인, 기도로 서는 교회' (사 62:6)를 주제로 오는
7월 17일(금)과 18일(토) 서울 잠실학생체육
관에서 열린다. 17일은 오후 4시부터 8시 30분
까지, 18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8시까지 집회
가 이어진다. 500개 한국 교회 2만여 성도가
참석할 예정이다.

714기도회에서는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이기용 목사(신길교회), 이인호 목사(더사랑
의교회),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이정규

목사(시광교회)가 말씀을 전한다. 기도회 인도
는 안광복 목사(청주상당교회), 이해영 목사
(성민교회), 김도훈 목사(신림동산교회), 김형
석 목사(필그림교회), 이요한 목사(수원순복
음교회), 류성룡 목사(흙어진화평교회), 이지
훈 목사(대구범어교회), 남경우 목사(GMTC),
이종필 목사(세상의빛교회), 김경석 목사(강
서침례교회) 등이 한다.

참가신청은 714연합기도운동 홈페이지(ww
w.714praymov.org)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868-8425

2026 차세대 어드벤처

2026 차세대 '어드벤처(Adventure)' 교사
강습회가 '여호수아, 약속의 땅으로' (수 1:7)
를 주제로 진행 중이다. 6월 27일(토)까지 매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
된다. 기도회와 주제 강의, 찬양, 교재 강습 등
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3차 교사 강습회는 6월 13일(토) 각 캠퍼스
본당에서 열린다. 대전, 서산, 부천, 인천, 영종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들이 참가한다. 4차
교사 강습회는 6월 27일(토) 제주온누리교회
에서 한다. 제주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들이
대상이다.

문의: 02-3215-3521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시편〉 42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첫걸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중요한 요소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갈망은 감정의 영역이지만,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고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고, 행하려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서가 죽어 있다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헐떡이는 것은 몸 전체가 목이 마를 때, 몸 안에 있는 모든 모공이 목말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슴은 좀처럼 소리를 내지 않는 짐승인데, 헐떡거리는 소리를 낼 정도라면 얼마나 간절히 목이 마른 상황인지 보여 줍니다(시 42:1). 사슴은 몸 안에 물을 저장할 저장소가 없기에 수시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낙타를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면 물을 저장해서 살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물을 마시면 되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경제적인지.

그러나 우리는 낙타가 아니라 사슴입니다. 사슴은 물에 아주 예민하고 자주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살아있는 신앙과 없는 신앙은 매우 다릅니다.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살아 있습니다. 사슴이 알려주는 제자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이 깨어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 그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종교적 활동에 불과합니다. 선물은 받지만,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갈망은 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활동도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시 42:2).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깊은 갈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의 갈망은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가 아니라 척박한 광야에서 얻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갈망이 깊어지는 자리는 가장 척박한 광야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실제로도 광야에 있습니다. 더 넓게 표현하면 세 겹의 광야에 있습니다.

세 겹의 광야에서

첫째, ‘사회적 광야’입니다(시 42:3). 한두 번 사람들에게 조롱받은 게 아닙니다. 종일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난입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롱입니다. “교회를 보니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게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칭찬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믿고 싶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교회를 보니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사회적으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너의 이 불안하고 낙심에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사람은 실제로 ‘물리적 광야’에 있습니다(시 42:6).

요단 땅, 헤르몬 산, 미살 산은 지금 이스라엘 최북단 시리아 국경 지역입니다.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미살 산은 아마 헬몬산의 여러 봉우리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북쪽 변방으로 피신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 함께 도피했던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시편〉 42편 4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다니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사람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졌습니다. 만일 그가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았다면, 이 〈시편〉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가장 감동적인 고백들의 공통점은 모두 광야에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깊은 광야에서, 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고백과 갈망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영적 광야’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조롱만 받은 게 아니고, 물리적인 광야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침체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인데, 여기서 ‘풀이 죽어 있다’와 ‘불안해하다’라는 동사를 분석해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풀이 죽어 있다는 건 의기소침해서 가라앉은 상태이고, 불안해한다는 것은 으르렁거리며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가라앉고, 한편으로는 끓어오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며, 섬기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의 영혼을 사슴으로 비유하며, 그분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의 상태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친밀함을 경험했던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이 아닙니다. 매너리즘은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갈망이 있기에 괴로운 것입니다. 〈시편〉 42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광야에 있던 한 영혼,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물리적으로도 광야에 있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의 갈망이 역설적으로 더 강렬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강렬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망을 통과하고 헤쳐 나오는 방법

이 〈시편〉 기자는 갈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갈망을 통과하고 어떻게 헤쳐 나오는지

를 보여줍니다.

첫째,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침체와 가라앉음 속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섬겼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찬송 받으셨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은혜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게 계속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말하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염려의 말, 절망의 말, 두려움의 말, 근심의 말, 비교 의식의 말, 후회의 말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자기 자신에게 말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태어난 새 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을 향해 계속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책망하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끊임 없이 말하는 것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셋째, 영혼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갈망을 이어갑니다.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는 말씀에서 ‘오히려’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환경이 다 바뀐 뒤에 감정이 좋아지면 찬송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의 한복판에서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이 깊이 익어가는 곳은 찬송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그분을 갈망하고,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 갈망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조롱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편〉 42편을 붙잡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를 갈망하며 살아가셨다면, 우리도 이 〈시편〉 말씀을 붙잡고 목마른 한 마리의 사슴처럼,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분주함이 그 갈망을 대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갈망 없는 신앙생활은 활동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갈망이 깨어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광야 속에서 이 갈망이 더 깊어짐을 감사하십시오. 매일 아침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먼저 말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대화 중 누군가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악과 고통의 특정한 사건에 쉬운 설명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고통을 인정하고 설명할 만큼 충분히 큰 세계관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동시에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신뢰할 이유도 제공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선한 사람’과 ‘나쁜 일’이라는 표현이 이치에 맞으려면, 우리가 도덕적 세계에 살고 있어야 한다. 회의론자들과 냉소주의자들은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결코 나쁜 일이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선과 악이 실제로 존재하고, 인간이 선악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계, 죽음과 폭력과 자연재해가 진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뿐인 세계에서 ‘나쁜 일’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행동이 사실상 동물의 본능과 다를 바 없고, ‘적자생존’이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체의 미래를 결정하며, 인간에게는 그것을 거슬러 행동할 자유가 없는 세계에서 ‘선한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우주는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일을 ‘나쁘다’고 인식할 때 우리는 일어난 일이 본래 의도된 방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창조주가 없고, 세상에 설계나 목적이 없다면, 사물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오직 사물이 실제로 어떠한지만 있을 뿐이다. 인간이 책임져야 할 도덕적 기준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도덕적 장소라고 느끼며, 어떤 것이 나쁜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 감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둘째, 기독교는 나쁜 일이 죄의 결과라고 가르친다. 기독교는 이 세상이 ‘원래 그래야 할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고통, 폭력,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세상을 돌보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불순종했을 때 세상이 도덕적, 자연적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나쁜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인간들이 창조 세계를 망치도록 허락하시는지를 궁금해한다. 하나님은 억지로 순종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

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라 인간을 원하셨다.

셋째, 죄와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악과 불의를 겪으신 참으로 선한 사람이셨다.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불의를 겪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심지어 피를 흘리고 질식사해서 죽어 가는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셨다. 그 모든 것을 몸소 겪으셨고, 악이나 고통을 견뎌 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 고통을 안다.”

하나님은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들어오셨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들의 고통과 함께 하셨다. 우리 죄의 무게를 짊어지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언젠가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이 초래한 악에

서 자신을 예외로 두는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셨고, 죽으셨지만, 사흘 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그것을 이기셨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라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이미 행동하셨다”라는 것이다. 기독교는 악의 모든 행위나 고통의 경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슬퍼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보다 더 미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한다. 하나님은 행동하셨고, 성경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하신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거라고 약속한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묻는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선한 사람’과 ‘나쁜 일’이라는 표현이 이치에 맞으려면, 우리가 도덕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야 한다.”

“기독교는 나쁜 일이 죄의 결과라고 가르친다.”

“죄와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래한 세상 (1)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내일의 대한민국’



노지준 장로
(온소망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어느 날 아침, 웨딩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O교회 김 집사는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동성 커플이 웨딩 촬영을 요청한 것이다. 김 집사는 정중히 말했다.

“일반 촬영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만 결혼 축하 콘셉트

의 촬영은 제 신앙적 신념상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30분도 안 돼 ‘시대에 뒤떨어진 신념으로 인권을 침해한다’는 욕설 전화를 수없이 받게 된다. 한 달 뒤, 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행한 서비스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서가 도착한다. 권고서가 도착한 뒤 일주일 뒤, 김 집사는 그 동성 커플이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된다. 이 사례는 가상의 이야기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상에서 이 시나리오는 상상이 아니라 곧바로 현실이 된다.

기독교는 차별금지를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사회적 부당 차별 현장에서 피차별자를 도운 것은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 도덕규범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는 것을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

지법 내의 ‘성적 지향’ 차별금지의 본질은 하나님이 ‘가증하다’(레 20:13)고 선언하신 행위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선하다고 칭한다. 그 행위를 죄라 부르는 성경적 신조를 ‘혐오’로 낙인찍어 악하다고 칭한다. 이는 선과 악의 자리를 뒤바꾸는 행위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을 인간 스스로 다시 정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사 5:20).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가 이 시대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2021년 영국 런던, 71세의 존 셔우드 목사는 엑스브리지역 광장에서 노상 설교 중이었다. 그는 <창세기> 1장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설계에 따른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지극히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 설교가 혐오 발언이라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설교 중단을 명령했다. 셔우드 목사가 “나는 성경의 진리를 전할 뿐”이라며 거부하자 경찰은 설교대 위의 71세 노(老)목사를 바닥에 내팽개치듯 강제로 끌어내려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듬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고령의 목회자가 대중 앞에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 자체가 이미 처벌이었다. ‘성경대로 말하면 저렇게 끌려가겠구나’라는 공포가 사회를 덮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노리는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 제빵사 잭 필립스가 운영하는 베이커리에 게이가 찾아와 자신들의 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기독교인이었던 잭 필립스는 정중히 거절했다.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신앙적 신념에 반하는 ‘동성 결혼 축하 메시지’에 담을 수는 없다는 게 이유였다. 게이 커플이 손가락 욕을 하며 자리를 떠난 지 20분도 안 돼 잭 필립스는 총으로 머리를 날려버리겠다는 협박한 협박과 수많은 비난과 욕설 섞인 전화에 시달리게 된다. 몇 달 뒤 접한 콜로라도 인권위원회의 반응도 가혹했다. 위원들은 그의 신앙적 소신을 노예제나 홀로코스트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수사학과 동일시하며 맹비난했다. 국가 기관이 성경적 성 윤리를 지키려는 한 기독교인의 신앙을 반인륜적 범죄와 동일 선상에 놓은 것이다.

잭 필립스는 2018년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승소 판결이 나오기 전 한 변호사가 필립스에게 ‘성전환 수술 축하 케이크’를 주문했고, 거절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잭 필립스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10년 넘는 세월을 끝없는 소송과 살해 협박 속에서 보냈고,

가게 매출 40%가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다. 신앙이 굴복할 때까지 몰아붙이는 ‘법적 괴롭힘(Lawfare)’이다.

잭 필립스는 인터뷰에서 “저는 아내와 신앙을 거스르는 일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었다고 했다. 작은 시골의 한 기독교인이 세운 삶에서의 신조와 그 신조를 굽히지 않은 용기는 세상을 뒤흔드는 울림이요, 파고가 되었다.

만일 잭 필립스가 한국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다 동일한 사건에 부딪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극대화된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그 보호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진보적인 대법관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대법원 구조 변화의 현실을 감안하면 동일한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 그 결과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가브리엘 쿠비는 저서 <글로벌 성혁명>에서 “성혁명은 타고난 본성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며, 모든 자연적 규범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혁명의 법적 완성체다. ‘차별금지’라는 선한 이름 아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룩한 규범을 장애물로 여기고 제거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지위에 올라서려는 시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법을 허물고, 인간이 선악의 주권자가 되려는 도전 앞에 우리는 서 있다.

당신은 진정 가치로운 존재입니까?

드라마가 꺼낸 질문, 성경이 먼저 답하다!



장보원 팀장
(고양은평공동체,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교육팀장, <소리로 흐
르는 육아> 저자)

최근 인기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
고 있다’(이하 ‘
모자무싸’)는 ‘나
의 아버지’(2018)
와 ‘나의 해방일
지’(2022)로 한국
드라마의 결을 바
꿨다는 평가를 받
는 박해영 작가의

신작이다. 20년째 데뷔하지 못한 영화감독 지
망생이 인생의 바닥을 치는 순간, 과부하에
걸린 영화사 PD를 우연히 만나며 서서히 자
신의 가치를 다시 깨닫는 이야기를 담았다.

박해영 작가의 드라마에는 늘 반복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 바로 ‘지치고 무너진 사람
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이다. ‘나의 아버
씨’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중년 남자와 세상
에 상처받은 청년이 서로를 알아보는 이야기
였고, ‘나의 해방일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
는 평범한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
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화려한 반전도,
극적인 사건도 없다. 그저 버티고 또 버티다
가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박해
영 드라마의 문법이다.

“내 인생이 왜 네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요?”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난.”

드라마 ‘모자무싸’의 이런 대사들이 SNS
를 타고 빠르게 퍼진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
들은 이 드라마에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발견을 한 것이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
구나. 나만 이렇게 나를 증명하며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안도감이 수많은 사람을 화
면 앞에 붙잡아 두었다.

그런데 필자는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이 질문, 성경이 수천 년 전에
먼저 꺼낸 것이 아닌가. 드라마가 묻는 것을
성경은 이미 답하고 있었다.

뇌는 ‘안전기지’를 필요로 한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
셨으며”(시 139:16a).

〈시편〉기자의 고백이다. 우리의 가치는 태
어나기 전에,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선언
되어 있었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결작
품’이라 불렀다(엡 2:10). 증명해야 하는 존재
가 아니라, 이미 작품으로 선언된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느끼지 못
할까.

우리의 뇌는 생존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
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이 온전히 작동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안전기지’다. 위협을 감지하면서도 ‘



“드라마 속 인물들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는 것은
그들이 특별히 불행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다.
그 싸움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이제 고개를 들자. 하늘 아버지는 오늘도
당신을 향해 달려 나오고 계시니까.”

나는 안전하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확신
이 있을 때, 뇌는 비로소 불안 없이 세상을 향
해 나아갈 수 있다. 그 안전기지의 근원이 하
나님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생존
시스템은 공포가 아니라 신뢰 위에서 작동하
게 된다. 그 연결이 끊기면 뇌는 혼자 가치를
증명하며 허덕이기 시작한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존 불안이 없었
다. 뇌의 생존시스템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닳
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한 안전기지였다. 그 닳이 있는 한 생존시스
템은 과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타락이 그
닳을 끊었다. 그것도 우리 손으로. “너희가 하
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뱀의 유혹의 본질
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생산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 순간부터 인류는 혼
자 가치를 증명하며 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부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기 시작
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끊어진 것은 우
리 쪽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끊
으신 적이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9).

필자는 육아 강연 때 <누가복음> 15장의 탕
자 이야기를 빗대어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엄마는 항구, 아이는 배. 배가 만바다로 힘
차게 나갈 수 있는 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항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안전기지다. 탕
자는 스스로 닳을 끊고 만바다로 나간 배였
다. 가진 것을 모두 탕진하고, 방향을 잃고, 표
류했다. 돌아오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협상을
준비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은 없으니 품꾼으로만
써주십시오.”

만바다에서 너무 오래 혼자 살았기 때문이
다. 조건부로 가치를 얻는 방식밖에 몰랐던
거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 나온다.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가장 좋은 옷을 입히
고 반지를 끼웠다. 항구가 배를 향해 먼저 움
직인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우리
가 가치를 증명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
다.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가치가 회복된
것이다.

안전기지에 접속하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연결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일명 ‘말기잔’ 말씀, 기도, 찬양
을 통해서다. 너무 식상한가? 그런데 이것을
성도의 의무가 아닌 내 뇌가 지금 안전기지
가 필요하다는 사실로 인식하면 어떻게?

말씀은 뇌의 생존 내러티브(Narrative, 이
야기)를 바꾸는 유일한 외부 언어다. 뇌는 끊임
없이 이야기를 쓴다.

“나는 부족하다. 증명해야 한다.”

말씀은 그 이야기에 끼어들어 다른 이야기
를 심는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것이 반복될 때 뇌는 실제로 새로운 회로
를 만들어낸다. 의무가 아니라, 뇌를 새로 쓰
는 작업이다. 이것이 바로 뇌의 ‘신경가소성’
이다.

기도는 안전기지를 향해 몸을 돌리는 행위
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엄마를 찾는 건 훈련
이 아니라 본능이다. 기도는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을 끊고, 다시 안전기지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것이다. 말이 없어도 된다. 방향이 중
요하다.

찬양은 신체가 생존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빠른 통로다. 음악은 자율신경계를 조절
하고, 신체에 안전 신호를 보낸다. 찬양은 종
교적 의식이기 전에 뇌가 안전기지에 접속하
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라
는 것이 아니다. 항구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 규칙을 따르는 게 아
니듯, 지치고 필요해서 돌아오는 것이다. 그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항구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달려 나오고 계신다.

오늘도 싸우고 있는 당신에게

매일 아침 무가치함과 싸우는 것은 부끄러
운 일이 아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여전히 안
전기지를 찾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안
전기지는 우리가 닳을 끊었다고 생각하는 동
안에도 한 번도 자리를 뜬 적이 없다.

최근 드라마 ‘모자무싸’가 수천 년 묵은 질
문을 다시 꺼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존재함으로 가치 있
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보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에
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다.

당신은 지금 어떤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를 되묻는 직장인일 수도 있고, 아이에
게 또 소리를 질렀다며 스스로 책망하는 부
모일 수도 있다. 혹은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
보니 남은 게 없는 것 같아 허탈한 청년일 수
도,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불안에
잠 못 드는 청년일 수도 있다. 오래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스스
로를 지워가고 있는 노인일 수도 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그토록 많은 사람의 마
음을 건드는 것은 그들이 특별히 불행한 사
람들이어서가 아니었다. 그 싸움이 너무나 익
숙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기 때
문이다. 그러니 이제 고개를 들자. 하늘 아버
지는 오늘도 당신을 향해 달려 나오고 계시
니까.

파워스테이션, 다문화 청소년 연합 찬양집회

서빙고, 양재 및 다문화 중고생 150여 명 참석



파워스테이션 '다문화 청소년 연합 찬양집회'.

파워스테이션이 지난 5월 23일(토) 안산M센터에서 '다문화 청소년 연합 찬양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안산 지역 다문화 중고등학생들과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파워스테이션은 차세대지역본부 소속 찬양팀이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차세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그동안은 경찬홀을 중심으로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부터 '찾아가는 찬양예배'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지난 3월에는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훈련병 3,300여 명과 함께 예배드렸고, 4월에는 양재기쁨홀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산M센터 집회는 세 번째 사역이다.

김태완 목사(안산M센터)는 "다문화사역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일"이라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한국 교회 및 다문화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연합 찬양집회가 더 자주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6월 7일 오후 8시 20분 CGN '레디온' 출연

NGO 더멋진세상이 6월 7일(일) 방송되는 CGN '레디온'에서 지난 16년 동안의 사역과 향후 비전을 선포한다.

NGO 더멋진세상의 설립 취지와 정체성, 전 세계 37개국에서 해 온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인도적 지원 활동 등을 소개한다. 특히 지역사회 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더멋진마을 조성사업'도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후원자들의 나

눔이 전 세계 곳곳에서 식수, 교육, 보건, 소득 증대 사업 등으로 이어져 현지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조명한다. 신원석 사무국장(NGO 더멋진세상)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방송은 6월 7일 오후 8시 20분 CGN TV 채널에서 한다. 레디온 유튜브 채널과 CGN '퐁당'에서도 다

/ 홍하영 기자

71기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6월 26일~28일 여의도 침례교회 드림센터

71기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여의도 침례교회 드림센터(경기도 광주)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목회자 50%, 부부, 가족 20% 할인). 선착순 60명 모집한다.

내적치유학교에서는 '내적치유와

상처', '역기능 가정의 치유', '학대와 수치심의 치유',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기원 목사, 최용준 목사, 오원웅 목사, 오은규 목사, 김성욱 목사 등이 강의한다.

문의: 010-2596-1014, 010-2310-4103

/ 박지혜 기자 wisdom@onnuri.org

통합 행정 플랫폼 '온케어' 출시

로그인 방식 간편인증으로 전면 전환

온누리교회가 분산된 교회 행정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온라인 통합 행정 플랫폼 '온케어'를 6월 1일(월) 출시했다.

온케어는 성도의 교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다. 새가족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행사 신청, 교적 정보 확인, 수강 이력 조회, 순 출석 정보 확인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웹페이지(ocare.onnuri.org)와 모바일 앱(QR 참고)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한다.

온케어 출시와 함께 기존 서비스의 로그인 방식도 변경됐다.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방식에서 휴대폰 본

인 인증 및 카카오톡·네이버·구글 등 SNS 간편 로그인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용을 위해서는 온누리 통합인증센터 신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서비스에서 사용 중인 계정이 있더라도, 통합인증센터에서 반드시 새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온라인 본인 인증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한 '현장인증'도 한다.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방문해서 사전 등록을 한 다음, 전달받은 정보를 온라인 가입할 때 입력하면 인증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목회행정실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문의: 02-793-9686



포천하랑센터 봉사자 모집

포천하랑센터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이주민들에게 한국어 가르쳐주는 봉사자와 차세대 예배를 섬길 전문 사역자를 기다리고 있다. 봉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전화(031-544-9236)로 신청하면 된다.

포천하랑센터는 14개국 90여 명의 외국인 학생과 어린이, 이주민 가정 등을 섬기는 공동체다. 한국어 강좌, 비자, 면접 강의 등 외국인을 위한 맞춤 사역을 하고 있다.

문의: 031-544-9236

서빙고 전기 안전 검사로 인한 정전

7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가 7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기 안전 검사로 인해 전력 공급을 중단한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검사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검사한다. 정전 범위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관과 선교관 모든 층이다. 안전 검사 중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검사 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정전 시간 동안 모든 전기설비 사용이 제한된다. 민감한 전기 및 전자장비를 미리 꺼둬야 한다. 비상발전기 시험운전으로 인해 전원이 반복적으로 투입 및 차단 될 수 있어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문의: 02-3215-3120(시설관리부 전기팀)

/ 홍하영 기자

FA 25기 청년 선교사 모집

7월 6일까지 서류 접수

FA(Frontier Agency movement) 25기 대학청년 단기선교사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1년 이상)이자 대학청년부 공동체 소속(6개월 이상)인 세례교인으로, 35세 이하 미혼(90년생 8월 이후 출생)이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FA 25기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

은 7월 6일(월)까지 이메일(fa@tim.or.kr)로 서류(선교사 허입신청서, 추천서 3부(목회자, 공동체 리더, 지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 결과서, 보호자 동의서)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 양식은 두란노국제선교회 홈페이지(tim.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070-4464-8103(8105)

NGO 메디엑세스 마노아팀 포천하랑센터에서 의료선교사역 실시

NGO 메디엑세스 마노아팀이 지난 5월 17일(일) 포천하랑센터에서 의료선교사역을 했다. 봉사자 22명이 내과 35건, 정형외과 23건, 치과 18건, 산부인과 4건 등 총 104건의 진료를 했다. 이마용 서비스도 15건

제공했다.

NGO 메디엑세스 마노아팀은 국내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 출범한 의료선교팀이다. 지금은 이주민과 다문화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 남현영 기자

'Love & Marriage' 2기 모집

성경적 원리 안에서 건강한 만남과 사랑을 준비하는 'Love & Marriage' 2기 Public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6월 14일(일)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미혼 남녀 각 24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12만 원.

Love & Marriage는 하나님이 계

획하신 행복한 가정을 사모하는 미혼 남녀들이 건강한 관계를 위한 분별력을 갖추고,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만남과 사랑을 준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사)행가래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온누리교회가 후원한다.

문의: 010-4928-0707(형제), 010-3340-7039(자매)



/ 박지혜 기자

177기 서빙고 큐티스쿨 참가자 모집

177기 서빙고 큐티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6월 10일(수)까지 아이스쿨(school.onnuri.org)에서 하

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177기 서빙고 큐티스쿨에서는 큐티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큐티 나눔을 경험하며 일상에서 큐티를 지속하도록 도와준다.

문의: 010-7131-1284

성경적 세계관과 삶 참가자 모집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성경적 세계관과 삶-성경의 시선으로 세상을 걷다'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한다. 강의영상은 6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bibleco

llege.duranno.com)에 업로드된다. 신앙과 현실을 연결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4만 원(6월 22일까지 신청하면 회비 12만 원).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세종교육관 전도 간증



/ 김혜원 전도사(세종교육관 예꿈)

더 큰 “할렐루야!”
소리가...

“태권!”

주중에는 수십 명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가득한 세종의 한 태권도장에 “할렐루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난달 차세대 주일을 맞아 대전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에서 ‘복음버블쇼와 함께하는 친구초청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세종교육관은 예배 공간이 협소해서 100여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수용할 장소가 없어 같은 건물에 있는 태권도장을 빌렸다. 유년부와 소년부 친구들과 그들이 전도한 친구들,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함께 모여 복음 이야기가 담긴 버블쇼를 구경했다. 신나고 즐거운 예배도 드렸다. 태권도장을 가득 메운 아름다운 비눗방울과 화려한 LED 공연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했다. 공연자들과 예배하는 아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했다. 어린이들은 버블쇼를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쳤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른들에게도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었다. 여기가 천국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온 한 아이는 “이렇게 아름답고, 신나는 곳이 교회라면 매일 오고 싶다”고 고백했다. 공연 내내 이야기한 예수님이 더 알고 싶다는 소감과 함께 또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세종교육관 차세대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을 이 땅의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물들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오늘보다 더 큰 “할렐루야!” 소리가 세종교육관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한다.



■ NGO 메디엑세스 봉사자 간증



/ 안철민 팀장(NGO 메디엑세스 마노아팀, 송파B공동체)

포천하랑센터 진료,
그 너머의 이야기

지난 5월 17일, NGO 메디엑세스 마노아팀이 ‘포천하랑센터’를 찾았다. 봉사자 22명이 하루 동안 내과, 안과, 정형외과, 치과, 산부인과를 포함해서 총 104건을 진료했다. 이미용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나를 선대해 주는 사람을 만난 하루’이기도 했다. 단순한 104건의 진료가 아닌, 그 너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마노아팀은故 하용조 목사님의 의료선교 부르심에 응답한 의료인들이 모여 시작했다. 초대 팀장 안태환 장로님을 중심으로 미자립 교회와 외국인 공동체를 찾아 다니며 사역했다. 지금은 대부분 사역을 이주민과 다문화 공동체에 집중하고 있다. 포천하랑센터와 동두천 아프리카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올여름에는 인도네시아 이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다.

마노아팀이 섬기는 포천하랑센터는 2022년 5-6명이 상가 건물에서 모이던 예배공동체였다. 그런데 채 4년이 되지 않아 14개국 90여 명이 찾는 센터로 성장했다. 큰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도우심이 있었고, 돌봄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품어온 센

터장 목사님 부부와 선생님들의 사랑이 녹아 있었다. 센터 학생의 75~80%가 결손가정이고, 일반적인 센터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의 학생이 절반이 넘는다. 그런데도 교육청과 시의 지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모든 학생을 품었다. 가정에서 누려야 할 경험과 교육을 한 명 한 명에게 주겠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환자 중에는 공장에서 반복 작업을 하면서 어깨와 목 통증을 안고 사는 이들이 많았다. 의료보험이 없어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노아팀이 기업 펀딩을 찾아 수술까지 연결해 줬다. 그 마음이 전해지면서 센터를 찾는 새 발걸음이 늘었다. 질병이 나은 것을 계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외국인들도 생겨났다.

한 달에 한 번 진료만으로 모든 아픔을 돌볼 수는 없다. 그래서 꾸준히 현장을 지키며 많은 이들의 아픔을 돌보는 포천하랑센터가 더욱 귀하다. 마노아팀은 포천하랑센터가 계속 이 사역을 해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이다.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열리게를 바란다.

■ 양재 와이미션 107기 수료 간증



/ 이정화 성도(Bridge33+공동체)

사랑에 빛진 자들의
당연한 응답

나에게 ‘선교’라는 단어는 늘 경외심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거리감을 줬다.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소수의 사람이 힘지로 떠나는 고귀한 희생이자, 어쩌면 내가 주체가 되어 완수해야 할 무거운 숙제처럼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와이미션에 참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선교의 정의를 재정립할 수 있었다.

강의에서 배운 선교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에서 시작되어 인류의 문화를 관통하며 흐르는 거대한 강줄기였다. 그 물결이 나에게 ‘내가 주도하는 능동태적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수동태적 삶’에 몸을 맡기라고 말하고 있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먹먹함과 마주했다. 한국 땅에 입국하자마자 병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자녀를 잃고, 채 꽃을 피우기도 전에 값없이 자신을 내어준 선교사들의 삶을 보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하나님, 이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곧 그들의 짧은 생애는 헛된 소모가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성경적 원리의 살아 있는 증거임을 깨달았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이르기 위해 누군가 값비싼 대가를 치렀음을 깨닫는 순간 선교는 ‘위대한 영웅의 업적’이 아니라, ‘사랑에 빛진 자들의 당연한 응답’임을 알게 되었다.

이번 훈련의 정점은 황요셉 선교사님과 만남에서 얻은 ‘수동태적 삶’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나는 자꾸만 삶의 주권자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완수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미한 음성에 이끌려가는 삶이 가장 강력한 선교적 동력임을 배웠다.

나는 긴 호흡으로 이 여정을 준비하려 한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동참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직접 가는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바나바’처럼 다음세대 양육을 돕는 ‘보내는 선교’에 먼저 헌신하고 싶다.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 양재 농어촌선교팀 봉사자 간증



/ 이형섭 총무(양재 농어촌선교팀)

모든 것이 은혜

지인 소개로 온누리교회 여호수아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찬양팀, 순장, 양재 2부 성가대를 섬겼다. 어느 날, 성가대 권사님과 집사님의 강력한 권유로 낯선 농어촌선교팀 모임에 발을 들였다. 매주 이어지는 중보기도와 탐방모임에 참석하면서 이 사역의 소중함을 하나하나 깨달았다.

올해 초부터 농어촌선교팀 총무로 섬겼다. 성인사역팀에서 중책을 맡게 되니 난감함과 부담감, 두려움이 밀려왔다. 선배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며 사역을 배워가고 있다. 농어촌선교팀의 귀한 사역 중 하나가 ‘찬양전도집회’다. 지난 5월 10일(일)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찬양전도집회를 개최했다. 게스트로 윤형주 장로님을 모셨다. 처음 집회를 기획하면서는 비슷한 행사를 여러 번 경험했으니 준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집회 당일 행사장에서 윤형주 장로님을 본 순간, 안일했던 내 생각이 부끄러웠다. 화려한 가수의 모습이 아닌 한없이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에 임하시는 장로님을 보면서 나도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강원도 고성 오호교회에 150명이 왔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갈망과 애정이 고스란히 담긴 윤형주 장로님의 찬양과 간증, 말씀이 참가자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움직였다. 메시지가 강력하고, 감동적이었다. 예배당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집회는 우리가 열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끝으로 집회가 막을 내렸다. 여운이 가시지 않는 듯 많은 사람이 윤형주 장로님의 히트곡을 함께 부르며 기쁨을 나눴고,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장소를 내어준 오호교회와 고성 지역 10개 교회 연합 예배에셀 공동체, 사전 준비부터 당일 찬양 인도와 전도 선물, 참석자 안내와 돌봄까지 함께해 주신 농어촌선교팀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눈물로 최선을 다하는 농어촌 교회의 심자가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더 많은 성도님이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시길 소망한다.

문의: 010-5214-7794

광고	복지재단	재정	소천
인천온누리교회 행정간사 모집 사역: 행정업무 대상: 여성(20~30대) 우대: 인근 거주자, 컴퓨터 활용능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교회양식) 접수: bamaby1091@gmail.com 문의: 신상민(010-8469-1091) 온누리세리암합창단 단원(초중등)모집 대상: 초1~중1(타 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오후 1~4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신영화(010-5091-1862)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웅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움 외상 어르신) 내용: 이미웅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웅 자격증 소지자 일사: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및 대기자 모집 신청 대상 및 기간: 서울시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신청부터~12월) 내용: 환경미화, 도시락 배달, 돌봄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 신청: 내방 신청(주민등록등본, 치매 검사 결과서 지참) 문의: 사회참여팀(02-736-76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 식당 배식 조리, 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사: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역북방성당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협의의 헌금 매뉴얼에서 모바일헌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셔서요. 헌금온라인 안내 실입주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음악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문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5/29(금) 양재B 정미진 성도 모친상, 박관수 성도 빙모상 고 임정례 5/29(금) 남대문희망 고 이명수 성도 5/31(일) 강남B 이유정 집사 시모상 고 김선호 5/31(일) 송파A 김재욱 성도 빙부상 고 강형수 5/31(일) 서초B 강재현 성도 모친상 고 김계현 5/31(일) 동작 진종구 장로 모친상, 박명숙 권사 시모상 고 박양순 권사 6/1(월) 북누리 최익성 집사 모친상 고 이정자 6/1(월) 마포 김선영 집사 시부상 고 임세빈 6/2(화) 서초A 최문희 성도 모친상 고 김경자 6/2(화) 관악금천 박순금 권사 모친상 고 서영순 6/3(수) 송파B 영동봉곡교회(국내아웃리치 교회) 고 이완섭 6/3(수) 분당A 최여경 성도 시모상 고 문복자 6/3(수) 온믿음 이동준 성도 부친상, 이미연 성도 시부상 고 이기태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웅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714연합기도대성회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



714연합기도대성회
참가 신청 QR코드



2026. 7. 17 금
오후 4:00~8:30

2026. 7. 18 토
오후 1:30~8:00

잠실학생체육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17일(금)

세션1(16:00-18:00)

환영·이인호 더사랑의교회
말씀·이기용 신길교회
기도·안광복 상당교회, 이해영 성민교회
찬양·신길교회

세션2(18:30-20:30)

환영·유기성 위지엠
말씀·이인호 더사랑의교회
기도·김도훈 신림동산교회, 김형석 필그림교회
찬양·더사랑의교회

18일(토)

세션3(13:30-15:20)

환영·김다위 선한목자교회
말씀·문대원 대구동신교회
기도·이요한 수원순복음교회, 류성룡 홀어진화평교회
찬양·아이자야61

세션4(15:40-17:20)

말씀·이재훈 온누리교회
기도·이지훈 대구범어교회, 남경우 GMTG
찬양·온누리교회

세션5(18:00-20:00)

환영·이재훈 온누리교회
말씀·이정규 시광교회
기도·이종필 세상의빛교회, 김경석 강서침례교회
찬양·아이자야61

714연합기도운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4,
1703호(가산아이비밸리)
TEL. 02-868-8425
E-MAIL. 714praymov@gmail.com

주최 714연합기도운동본부

협력기관 복음과도시 M~bridge 위드지저스
미니스트리 Lausanne 한국로잔위원회 CGN 714praymov.org